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알아도 그것은 아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도력이 어디서 생기나? 마음이 폭넓고, 폭넓은 그 무리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어느 부부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리고 몸을 빌려서 형성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뚱이를 붙들어 매서 진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해 드리는 말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홀로이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선지식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길을 딛지 말고, 남이 짜 준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남의 물을 먹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지어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 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 량이구나!' 하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걸 말로 꼬집어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전부.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했지만 정신계의 축지법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신을 먹고 살고, 정신을 잡아먹느냐 정신을 뺏기느냐 하는 문제들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관습의 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서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쉽지가 않고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놓아야 하는 이유

질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별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분별심을 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경학으로 모든 것을 일일이 따져서 배우려면 천 년이 가도 다 못 배울 겁니다. 다 못 배울 뿐만 아니라 깨치지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인도해 드리는 거는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놈이 하는 거다.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해 주는 의식들도,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다스리는 그놈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라고 해도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들도 다 내 선장의…, 선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응해 주면서 밀고 나가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의 힘들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사는 것이 모두 나의 불성 원동력이 그렇게 힘을 배출해 주는 까닭에 움죽거리지 않고도 이 우주 천하를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 항상 진화해서 발전시키고, 발전하면서 또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심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반야줄이라는 자기의 줄을 잡고서 나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본래는 반야줄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문이라는 것도 없고, 교차로라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여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이 세상의 도리로 악이다 선이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모자라다 영리하다, 길다 짧다,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의되는 데 이것이 자기를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참 미묘한 거죠. 인간은 당연히 고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업이 있다 없다, 무명이 있다 없다 이런 게 근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무조건 놓게 되면 무조건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모든 오장육부의 의식들도 통신이 되면서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입력이 되면은, 내 생각으로 잘됐다 못됐다가 없이,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착이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무조건 거기다가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놓게 되면, 앞서 차원으로 살아오면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 하고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놨으니까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그렇게 세세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저승 세상은 맛도 못 봅니다. 죽는 사람이, 한순간에 숨이 끊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두고 죽으면서 이유를 붙입디까? 죽는 사람은 이유를 못 붙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죠. 듣는 사이 없이 듣는 세상, 보는 사이 없이 보는 세상,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세상,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면 저렇게 하는 거, 이게 평등공법의 원리입니다. 이유를 붙인다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배우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이러고 갑니까? 죽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길에서 와서 길로 갔노라.' 하셨지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길에서 와서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길을 걷다가 길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오던 습과 착과 욕심과 그 의식으로 지내던 모든 것이 앙금처럼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귀찮은 일도 많은데, 생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모든 거를 다 놓고 편안히 그냥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골치 아픈 거를 다 이유를 따지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따지기도 좋아하고 또 뛰어들기도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나이가 좀 들면 점점점점 식어집니다. '에이, 귀찮아. 그저 뭐, 끼어들어 봤자 그렇구.' 이렇게 하듯이, 그냥 모든 거를 차례차례 닥치는 대로 다 놔 버리세요.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따지고 하는데, 무의 세상에 공법의 도리로서 가고 옴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한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도 방편이죠.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먹었을 뿐이듯이
> 모든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란

질문 금강경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셨는데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여러분은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는 생각을 하고 애가 와서 부르면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또 "여보" 하고 부르면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아주 생각을 하고 합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그리고 병고가 오더라도 '병고가 간다' 이러고선 옵니까? '내가 병을 앓겠다' 하고 앓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청정하다는 뜻은 더럽고 깨끗한 게 전체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나' 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지견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견이 열립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지, 아니, 머무르는 바가 있게 생활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야, 내가 집을 짓겠다.' 한다면 그것도 머무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집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을 전체 머무르는 바 없이 하고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의, 그 중심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데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